민주 '이래경 사퇴' 여진…이재명 책임론 속 구인난

거론된 인사 대부분 고사…당내 인사 인선 목소리도
李 "결과에 책임지는게 대표"…권칠승 '천안함 발언' 사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론'을 거론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후임 인선이 쉽지 않은데다 계파 갈등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위기 타개를 위한 혁신위원회 카드가 논란만 부각시키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만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자신이 임명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가',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있느냐'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무대책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명확한 사과도, 당의 진로에 대한 명쾌한 방향 제시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혁신위원장 부실검증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인선 발표 하루 전날인 4일 저녁에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도부에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인선 결과를 공유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지도부 사이에서라도 내부 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친명계 핵심 '7인회' 일원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더 차분하고 진중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보안을 (이재명)대표께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전에 (공유)해서 더 풍부하게 이분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줬다면 이런 인사 참사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발표 전날 최고위에서) '살펴보니 다소 과격한 표현들은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정도의 표현은 있었다"면서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정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후임 위원장을 물색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외부 인사를 찾기 어려운데다 거론되는 인사들도 고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검증 리스크'가 있는 외부 인사를 고집하기보다 안정감 있는 당내 인사를 인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차기 총선 불출마를 밝힌 우상호 의원과 지역구를 험지인 서초을로 옮긴 홍익표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때가 덜 묻은 외부 인사가 혁신위원장에 제격이라는 점에서 최종 인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막말'에 대해 사과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자리에서 최원일 전 함장이 '천안함 자폭' 주장을 편 이래경 이사장의 해촉을 주장하자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며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동민 '김봉현 불법정치자금 제공 인정' 반박

"번복 진술에 의존한 기획수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7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기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이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기 의원은 또 자신이 기소된 데 대해 "7년 전 일을 회유와 겁박, 거짓에 터 잡아 3년간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자행된 부당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권 차원 총선기획 노골화…국민통제 멈추라"

박광온 민주 원내대표 "최강욱 압색, 국회 무력화·국민 알 권리 차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7일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 노골화하고 있다. 당장 총선 기획용 '국민 통제'를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 통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전 부문을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모습"이라며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최근 선관위 장악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방송 장악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언론과 노동 현장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시민 사회에 대해서도 줄 세우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경찰이 지난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의원에 대해 청문 자료 유출 혐의를 들이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회와 언론은 교차로 인사 검증을 해왔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였다"면서 "(압수수색은) 국민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여야는 2년 전인 2021년 6월 29일 국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결의안이 국민의힘 태도 변화 때문에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함께 통과시켰던 결의안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의안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거듭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여의도 브리핑

"日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

윤재갑 의원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일본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지난달 26일부터 각 읍면별 시장 및 버스·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6일까지 지역주민 총 64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도 가계해수욕장과 31일 해남 명량대첩지 수변무대에서 총 1200여 명의 수산인 및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도 개최하는 등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수산업계의 막심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 해남 ·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당원, 군민과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일본 수산물 수입 반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해남 ·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1인 피켓시위, 온라인 서명운동 등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I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650㎡ (801평)
-경관 아주 좋음. 별장형 빌라, 숙박시설 등 적합
-본땅 2,346㎡(710평). 도로 포함 801평. 매도 7억5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